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55호

발행인: 조민제
발행일: 2015년 4월 27일(월요일)
발행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4.24 총파업으로 자신감 회복

민주노총이 4.24 총파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반민중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전국 26만여명이 파업에 동참했고, 17개 지역에서 7만여명이 힘있는 집회를 진행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공권력의 폭력에 상처받고, 노동자 서민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데도 권력 실세들은 수십억씩 뒷돈을 받아챙기는 현실을 이제는 반드시 끝내야 절박함이 컸다.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은 노동자 서민 살리기 투쟁의 시작이었다.

노동절엔 서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인 4월 16일 도망치듯 남미 순방에 나섰다. 자신의 최측근들이 심각한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데도 자신의 관계없는 척 외면하고 해외로 도망쳤다. 나라꼴이 개판이 되어도 대통령의 무책임한 모습은 변함 없었다. 27일 귀국하는 대통령에게 노동자들의 분노를 확실히

히 보여주기 위해 5월 1일 노동절은 서울로 총집결한다.

통상 지역별로 진행되던 노동절 집회를 서울 집중집회로 개최한다는 것은 민주노총이 이번 노동절 투쟁을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부패, 비리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도 끝없이 노동자 서민 죽이기에 골몰하는 박근혜 정권에게 우리의 뜻을 확실히 전달하는 노동절이 될 것이다.

투쟁은 계속된다!

총파업 투쟁을 사수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자신감이 넘친다.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을 보여준 기세를 노동절까지 이어갈 것이다.

민주노총이 4.24총파업으로 투쟁의 시작을 성공적으로 알렸다. 그리고 노동절 투쟁을 통해 정권의 핵심을 조준한다. 임단협이 본격화되는 6~7월엔 더 큰 투쟁이 만들어질 것이다. 박근혜의 폭주를 멈추기 위한 투쟁이 점점 커지고 있다.

콘티넨탈 108배 투쟁, 어느새 108일

노조파괴 분쇄를 위해 로비농성과 매일 아침 108배 투쟁을 이어온 콘티넨탈의 투쟁이 어느새 100일을 넘겼다. 콘티넨탈지회의 108배 투쟁이 4월 30일이면 108일째를 맞는다. 지회는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통해 투쟁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다질 계획이다. 노조파괴 사업장 중 유성기업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유시영 대표이사를 비롯해 공장장들에 대한 기소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보쉬전장과 콘티넨탈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장의 힘으로만 돌파해야하는 상황이다. 양 지회는 현장 로비농성에 돌입했고 지금까지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아직까지도 보쉬전장과 콘티넨탈의 금속노조 탄압은 멈출줄 모른다. 보쉬전장은 정근원 전 지회장의 해고무효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복직시키지 않고 버티고 있다. 콘티넨탈도 박윤중 지회장과 김종원 수석부지부장의 해고무효 판결이 고등법원까지 나왔지만 대법원 상고를 통해 시간을 끌고 있다.

시간끌기와 탄압, 차별에 굴할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투쟁이다. 콘티넨탈지회 조합원들이 더힘낼 수 있도록 무한 연대를 실천하자!

산재추모 문화제

일시 : 2015년 4월 29일(수) 13시00분
장소 : 한국타이어 신탄진공장 앞

2015년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2015년 5월 1일(금) 15시
* 장소 : 서울시청 광장